

익산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올해 637억원 투입, 26개 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구입 지원 등

익산시가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와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육 관련 3개 분야, 26개 사업에 6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서면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올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보육사업과 어린이집 설치 수급 계획, 놓여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를 특례인정,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어린이집 허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 공공성 확대와 보육 품질 향상, 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지원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가정양육수당지원, 시간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공휴일 시간제 보육 확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등 총 372억원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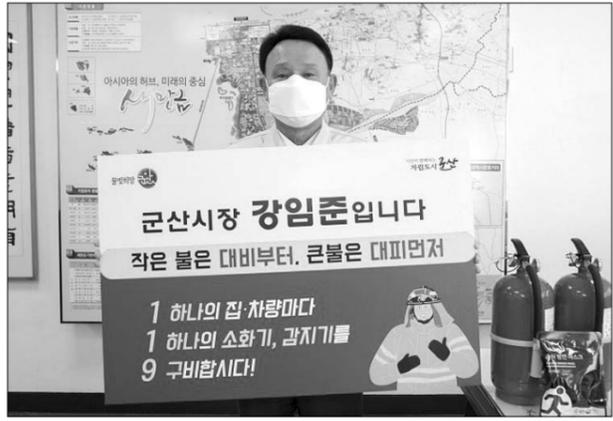
보육 공공성 확대와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1억7천만원,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22개사업 1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사업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해 21인 이상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56곳에 보존식 기자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78억원을 투입해 연장반 전담 교사와 보조·대체 교사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 전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CCTV 설치, 잠자는 아이벨화인장치,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설치,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3일 화재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화재예방 필수시설 구비에 동참합시다

강임준 군산시장, 119 릴레이 챌린지

강임준 군산시장이 3일 화재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고자 진행 중인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는 군산시와 자매도시인

이상천 제천시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권오봉 여수시장 ▲김충섭 김천시장 ▲유우종 군산소방서장을 지목했다.

강 시장은 "안전이라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졌다

군산시, 지원금 인상·지원 대상 확대 및 자동재충전 등

군산시가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1만4,400여명에게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의 문화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

된다. 올해는 국비 10억 2천만원을 포함, 지난해 대비 약 1억원이 증액된 총 14억 4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을 통해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현울 시장 '일자리 상황실 가동'

매주 직접 점검, 올해 1만9,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정현울 익산시장이 올해 1만9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상황을 직접 총괄하는 '일자리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 시장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실'을 구축하고 직접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시장'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상황실을 가동한 정 시장은 다리로움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지원과 강화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매주 중점 일자리 분야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미스매칭 해결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 타 시군으로의 인구가 유출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매일 지역고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청년일자리, 기업성장일자리, 서민경제활성화, 공공일자리, 농촌활력일자리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을 기반으로 올해 1만9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현울 시장은 "일자리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일자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면밀히 챙기겠다"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많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금마·함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공모 선정 위한 역량 집중

익산시가 금마와 함열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은 금마와 함열 등 2곳으로 사업 선정은 목표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공모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금마고도지역은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특화재생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명실상부한 백제고도지역 명소화와 지역 활성화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공모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함열지역은 북부권역의 교통, 행정, 경제의 중심지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으로 쇠락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농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함열지역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도 발족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물밑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앞으로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시의회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추진해 금마고도지역은 오는 5월 광역선정 공모사업에, 함열지역은 9월 중앙선정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 체제구축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핵심인 사업"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12일부터 임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였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서동환 의원이 '군산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불철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 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제21차 학술회의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는 '동북아에서 널리 형성되고 변화'를 주제로 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제21차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김치, 한복, 명절 등을 둘러싼 논쟁들로 동북아시아가 떠들썩하고, 그 배후에는 각국의 강한 내셔널리즘이 숨어있어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현실을 인식하면서 보다 나은 해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학술회의가 마련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며 재구축되었는지 박명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동북아 각국 내셔널리즘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볼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